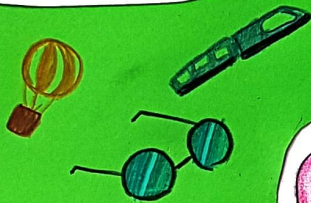


서영이네 가족 신문

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17년째 근무중인
아빠께서 박성욱입니다. 현재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로 주재원 파견으로 가게되어 가족들과 잠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지 못한지 몇일이 지났다고 벌써
가족들이 보고싶지만 아프리카에 철도기술을 전수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서영,
서진이도 자신이 즐거워할수 있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남을 도와줄수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아빠기자-



서영♡서진의 엄마이자 직업상담사로
근무했던 엄마께서 전소연입니다. 직업상담사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에 성공하도록
도움을 줄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껴습니다. 현재는 아빠의 주재원
파견으로 가족이 함께 이주하게 되어 준비를 위해 잠시
일을 쉬고 있지만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수 있어 감사함과
행복함을 느낍니다.

-엄마기자-



저의 꿈은 항상 잘 웃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족들과 따뜻한 저녁 밥을 먹을 때,
친구들과 손 잡고 하고있을 때, 동생과 장난치며 놀 때,
사소한 행복은 느껴집니다. 또한저는 어른이 되어서도
지금처럼 사소한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사소한
행복을 잘 찾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서영기자-



저의 꿈은 레고개발자입니다. 나중에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10대의 아이들에게 제가 개발한
레고를 소개 시켜주며 레고를 더욱 가깝게
느낄수 있도록 힘써주고 싶습니다. 저는 레고를
좋아하고, 잘합니다. 레고는 저의 단짝 친구이자 꿈
입니다. 미래의 친구들 도레고를 친숙하게 느끼며, 레고를
친구로 여길수있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님께 효도하게 되는 것도 제 소원이자 꿈중 하나입니다.

-동생기자-



가족 자랑했어요

- 서영이가 3년째 커티네이브스 편지쓰기와 기부에 동참해요!
- 엄마께서는 교회 학교 교사로 3년째 봉사하세요.
- 서진이는 미술대회에서 동상을 받았대요!
- 아빠는 탄자니아에 철도 기술을 전수해 줘요!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아빠,
독서를 즐기는 엄마,
그림에 관심있는 누나와
장난기 많은 동생!
우리는 모두를
사랑합니다.

막내 서영의 인기

